

특별회의[도시권]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공동행동

2022. 10. 12.(수) 9:30-11:30

주관: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GPR2C)

배경

많은 이들이 기후위기를 인류 앞에 놓인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후 행동의 사회 정의적 측면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나아가 기후 행동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정부의 조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수많은 시민 주도 이니셔티브가 기후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도시권은 영토의 보전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시민권, 참정권, 재산권, 사회권, 문화권, 환경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집합적 권리로서 사회 불공정, 불평등, 배척, 박탈, 공간 분리, 모든 종류의 차별, 공유지의 파괴와 사유화, 환경 악화 등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이고 유익한 프레임워크가 되어왔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기후 및 환경 정의의 개념에도 완전히 부합하며 공평한 기후 행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의제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GPR2C)이 편찬한 주제보고서 “도시권: 기후정의를 향하여 (Right to the City: A Road for Climate Justice)”를 제시하여 기후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권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비공식성, 성평등, 식량 주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주도한 노력의 경험과 사례연구를 강조한다.

목표



1.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기후정의를 지지하는 도시들의 공동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도시권의 역할을 탐색한다.
2. 비공식성, 성평등, 식량 주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주도한 노력의 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후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권 실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함양한다.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정의를 위한 공동행동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로서 도시권 소개
2. 소외 계층, 즉 기후 행동의 비공식적 공동체의 관점을 통합하고 참여를 독려
3. 기후 행동 내 양성평등 보장 논의
4. 기후정의의 표명으로서 지역사회 주도 식량 주권 운동 논의

